

검소한 여행·안전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항공권·여권비자수속
 한국동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단지 동영303호
전화: 代 (02) 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화/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71호

공주광역시 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구두닦는 아저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후문 육교 밑 2명 남짓한 구두닦이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김신호씨(40). 그는 공주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다.
 몸도 못가누고, 말도 못하는 장애인들이 차를 타려면 업거나 안아서 그들을 태워준다. 혼자 힘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으로 도저히 안될 때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도움을 청한다. 이제는 인근지역 복지시설에서 미리 차표예매를 부탁 할 정도로 '구두닦이 도우미'로 통한다. 그의 자비행은 10여년동안 해 온 탓에 일과가 돼 버렸다. 출·퇴근할 때, 점심시간 등 틈만 나면 터미널을 둘러보는 버릇(?)이 생겼다. 구두를 닦으면서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마음을 놓지 않는다. 무심결에 지나가는 행인들을 살피게 된다. 물론 그의 시선은 신발에서부터 시작된다. 직업때문인지 발소리만 들어도 장애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주변에서 "도가 텅다"고 말한다. 그가

큰스님들 잇달아 법문 힘겨운 세상에 감로수

비용·정화·성수·보성스님 등 20여 고승 산문밖 사자후

산사의 큰 스님들이 시정으로 내려온 뜻은 무엇일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과 산행단체들이 잇달아 큰 스님초청법회를 열고 있다. '큰 스님초청법회' 붐이 일고 있는 것은 경제난이 가중되어 실직자가 늘어나고 사회범죄가 증폭되는 가운데 큰 스님들의 신선한 법어 한 귀퉁이 절실한 시대상과 무관치 않다. 큰 스님 초청법회에는 해당 사찰의 신도뿐 아니라 타 지역 불자들도 상당수 참석하고 있다. 특히 40대 이후의 남자신도들도 적잖게 찾아온다는 것이 법회를 주최하는 사찰측의 정언이다.
 12일부터 19일까지 20여명의 큰스님들이 산문을 나와 법문했다. 특히 미국 LA 금강



△혜령 청문부대 애기봉 OP에 부처님 오신날을 알리는 연등법이 있었다. 봉축위원회는 14일 애기봉 OP에 연등법을 밝히고 통일기원 발원문과 북한동포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북녘 하늘에 띄웠다. 올 봉축기간에는 156마일 휴전선에 모두 12개의 등불연등이 통일 의 희망을 밝혔다. (고영배 기자)

군행사시 종교의식 국방부, 폐지 검토

'예수부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도병 해병사령관 이휘 일식 행사에서의 기도와 관련, 군 행사시 종교의식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사령관 이휘일식에서 군 목이 등단해 축하기도를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종실은 "군공식 행사에서의 종교의식은 부작용이 우려돼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고종 선암사 성역화 기구 추진

종단중흥위 구성키로... 조계종, 강력대응 방침
 조계종과 태고종이 선암사를 둘러싸고 분규의 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근권기사 3면>
 태고종은 8일 종무원에서 선암사 성역화 불사를 이끌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종단적 입장을 정리하고, (가칭)종단중흥추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키로 했다. 종단중흥추진위원회는 선암사 부주지 총연스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교구종무원장 및 기관장 중심의 부위원장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적으로 조계종 재산인 선암사를 태고종이 합부로 성역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부처님 오신날 직후 종무원장과 전남 북 본사주지 공동으로 강도 높

관람료사찰 3곳 추가 엄공원이사장 '반대'

조계종 관람료 위원회(의장 설조)는 15일 임시회의를 열고 강화 보문사, 소백산 비로사, 영천 수도사를 문화재 관람료 사찰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해당사찰은 관광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 매표소를 설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된다. 또 관람료위원회는 "엄대우 씨가 이사장에 임명되면 산문 폐쇄를 불사해서라도 거부사를 밝히자"고 결의했다. 위원회는 불교문화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가 관리공단 이사장이 되면 불교계와의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에 이 사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불교문화 체험기행

신록의 계절 5월, 경성과 전라를 잇는 저리산 자락 하 등방에 싱그럽게 펼쳐진 차밭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우리나라 차의 시배지 쌍계사 '차 축제와 제다원장'을 찾아 갑니다. 쌍계사에 들어서면 신라때 김대림이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처음 심은 것을 기념한 차 시배비와 이 절의 향건주인 진감선사의 공덕을 기린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 대웅전(보물 제500호) 등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그윽하고 은은한 차향기를 즐길 수 있는 이번 체험기행에서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다선일미의 세계를 찾아서'
 '쌍계사 차 축제, 제다원장'
 ◇출 발: 5월16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회 비: 4만원(점심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소쩍새마을 '인터넷 홈페이지' 20일 개설

현대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제작
 복지시설 소쩍새마을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소쩍새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이 현대불교신문 부다피아 정보센터에 제작을 의뢰 선보인 홈페이지는 장애인 고아 무의탁노인의 삶과 재활모습을 보여준다. 소쩍새마을의 연혁, 마을사람들의 사는 얘기, 뉴스를 사진과 함께 볼 수 있으며 후원인이 되는 방법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 http://www.sojjak.or.kr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광주 우성병원 교계에 회사 23면 여천 흥국사 환경훼손 심각 22면 금강경 배우는 연예인 불자들 5면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IMF가 시민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실감하는 오늘의 보통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심덩어리로 다가옵니다.

"여기 그 죽음이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죽음이 또하나의 삶인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림회가 있다"

지금부터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승복·유치원·사원복·음식점 유니폼·도복)

①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연락합니다. ② 문의처 02)3461-8552~3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

역사속의 빛나는 인물 100인의 죽음

- 죽기가 힘들었던 사람들/ 세네카와 데모, 광해군과 부의 위 6인
- 사라진 사람들/ 빛속으로 사라진 황제의 유해 카이사르의 9인
- 죽음과의 약속/ 사약을 독촉한 소크라테스와 송시열
- 깨달음과 죽음이 남달랐던 체노와 벅송선사
- 죽을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옥상산과 황수인, 소강철과 서화담
- 죽을보다는 철저한 삶/ 니체와 파스칼, 토마스 카알라인과 소동파
- 예술, 그 광기와 죽음/ 정신병을 앓던 모차르트, 슈만, 쇠스타크, 몽크
- 예드가 알만 포우와 보들레르, 카미유 클로델과 나체석
- 화려한 명성, 처참한 최후/ 칼레오파트라와 민비, 우미인과 양귀비, 사도세자와 소현세자
-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불교의 죽음관
- 목련문자와 혜기, 공초 오상순과 양관선사, 마디 테레사

도서출판 새문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3462-2277 팩스: 3462-2279